

제64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64 우선의제: Beijing + 25

검토의제: 모든 여성과 여아들의 역량강화 및 남녀평등 실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전 세계 각국의 회원국, 유엔기구, ECOSOC가 인정한 비정부기구 (NGO) 대표들을 초청해 회의에 참석한다.

2020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UN 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제64차 회의가 열린다. 이번 CSW는 지난 19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북경여성대회) 25주년을 기념한다.

유엔은 1972년 제27차 총회에서 여성지위위원회의 업적을 인정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제정하고 그해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첫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했다. 북경여성대회는 세계여성의 해 제정 20주년을 기념하며 열려 12개 주요 부분의 전략목표와 행동 계획으로 구성된 ‘베이징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여성은 더 이상 남성과 사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남성과 더불어 동반자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공식화했다. 189개국 정부대표, 유엔관련 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5만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대회에서 채택한 12개 관심분야별 361개 행동강령은 이후 각 나라의 여성인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다 강력하게 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성희롱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유엔 문서에 정식 예시됐고, 여성의 ‘성과 임신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건강결정권’ 관련 강령도 채택됐다.

한국은 북경여성대회에 손명순 대통령 부인을 비롯해 정부(GO)·비정부기구(NGO) 대표단 500여명이 참가했다. 북경여성대회 직후인 10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서둘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를 내놓았다. 그 과제 중 하나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이었다. 법 제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해 12월 신한국당이 ‘여성발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곧 이어 새정치국민회의도 ‘남녀평등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최종 ‘여성발전기본법’안이 대안으로 의결됐다. 베이징여성대회가 끝나고 3개월 만인 12월 30일 회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여성발전기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계여성대회는 1995년 이후 열리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유엔에서 여성문제가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대신 2000년에 유엔 특별총회가 ‘베이징+5’를, 2005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베이징+10’을, 2010년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가 ‘베이징+15’ 열고 베이징 행동강령 채택 이후 10년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3월에는 제63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열리며 25주년을 준비했다.

2020년은 유엔이 성평등 정책 가속화(accleration)를 위한 분기점으로 제시한 해다. CSW 제64차 회의는 베이징 행동강령의 지난 25년간 이행 결과 검토에 초점을 맞추며 함께 2030 지속 가능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금의 과제 평가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 또한 여성정책 관련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NGO 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엔 여성은 2020년 성평등 캠페인 문구로 ‘세대 평등(Generation Equality)’을 제시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Beijing+25 배경

- 유엔에 의해 세계 규모의 여성회의가 그 동안 4번 개최되어 왔다.
 - 제1차 1975년 멕시코 시티
 - 제2차 1980년 코펜하겐
 - 제3차 1985년 나이로비
 - 제4차 1995년 북경(Beijing)
-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는 세계 여성 운동의 전환점이 되었다. 6,000 명의 정부 대표자, 4,000 명의 공인 NGO 대표자, 다양한 국제 공무원 및 약 4,000 명의 미디어 대표자를 포함하여, 17,000 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석했습니다. 북경의 화이러우(Huairou)구 근처에서 열린 NGO병행포럼에는 30,000 명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로 나온 북경행동강령(The Beijing Declaration and the Platform for Action: BPfA)은 189개국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UN Women에 의하면 이 의제는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진보적인 계획”이자 “성평등에 관한 주요 글로벌 정책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 (BPfA)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 UN CSW가 BPfA의 이행과 총회 특별세션 23개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검토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2020년 검토에 반영되어 위원회가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NGO CSW/NY

- The NGO 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en, NY (NGO CSW/NY: NGO 여성지위위원회/NY)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NGO CSW/NY에서는 CSW가 개최되는 2주 동안에 다양한 단체 행사/포럼을 주관하고 있다.
- CSW64 기간: 2020년 3월8일 ~ 20일

NGO CSW/NY 포럼

- NGO CSW/NY 포럼의 접수는 무료이며 모든 참석자들은 포럼에 접수를 함으로써, 유엔본부 주변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병행포럼에 참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성지위위원회란 무엇인가?

-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산하기능위원회 중 하나로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 정부간 기구(global intergovernmental body)로써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설립됨.
-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회원국 중 경제사회이사회가 선출하는 45개 대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국은 아프리카 13개국, 아시아 11개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9개국, 서유럽과 다른 국가 8개국, 동유럽 4개국 등임. 각 이사국의 임기는 4년임. 한국은 1993년 4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이사국으로 처음 피선되었으며, 현재에도 이사국으로 활동 중임.
- 여성지위위원회의 의장단은 의장 1인, 부의장 4인, 보고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각 2년임.
-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여성지위향상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유엔 산하기관들의 여성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활동을 수행함. 매년 정치·경제·사회·교육 분야에서의 경제사회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을 선정하여 논의함. 북경 행동 강령의 정기적 이행검토 및 유엔 성주류화 활동에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최근 2030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젠다(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채택에 기여하여 여성의 권익 신장과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고 있음.

여성지위위원회 체계도



여성지위위원회 최근10년 의제동향 (2010~2020년)

- 여성지위위원회는 매년 2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 각 회원국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매년 주어진 의제에 관해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을 도출하여 정부와 타 기관들이 국제, 국내, 지역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함.
- 매해 주제는 상이하며, 주로 우선주제(priority theme)와 검토의제(Review theme)로 구성됨. 우선주제는 북경행동강령,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연계성을 토대로 선정되며, 검토의제는 이전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결론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함임.
- 최근 10년간의 의제 동향을 살펴보면 북경행동강령의 이행검토, 여성의 고용과 노동의 평등,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철폐, 재정 지원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2020년에는 19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북경여성대회) 25주년을 기념하며, ‘모든 여성과 여아들의 역량강화 및 남녀 평등의 실현’을 검토의제로 논의함.

연도(차수)	의제구분	주제
2010 (54차)	대주제	북경행동강령의 이행 검토 및 도전과제 북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NDGs)달성
2011 (55차)	우선의제	여성의 완전고용과 양질의 노동에의 동등한 접근 증진을 포함한 교육/훈련/과학분야에서의 여성참여
	검토의제	여아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 철폐 *제51차 회의 합의 결론 관련
2012 (56차)	우선의제	농촌여성의 역량강화와 빈곤 및 기근 근절, 개발 및 현재 도전과제와 역할
	검토의제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제52차 회의 합의 결론 관련
2013 (57차)	우선의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 철폐 및 예방
	검토의제	HIV/AIDS 간병을 포함하여 여성과 남성 간 평등한 책임 분담 *제53차 회의 합의 결론 관련
2014 (58차)	우선의제	여성과 여아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이행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취
	검토의제	여성의 완전고용과 양질의 노동에의 동등한 접근 증진을 포함한 교육/훈련/과학분야에서의 여성참여 *제55차 회의 합의결론 관련
2015 (59차)	대주제	북경행동강령의 이행검토 및 도전과제 북경행동강령과 성인지적 관전의 post-2015 개발의제 달성
2016 (60차)	우선의제	여성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
	검토의제	여성,여아 대상 모든 종류의 폭력 철폐 및 예방 * 제57차 회의합의 결론
2017 (61차)	우선의제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 강화
	검토의제	여성과 여아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이행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취 *제58차 회의 합의 결론 관련

2018 (62차)	우선의제	농촌여성,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 달성에 있어서 도전과 기회
	검토의제	여성의 언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참여와 접근 *제47차 회의 합의 관련
2019 (63차)	우선의제	성평등과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 보정 시스템, 공공서비스 및 지속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접근
	검토의제	여성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 *제60차 합의결론 관련
2020 64차 예정	우선의제	베이징 + 25
	검토의제	모든 여성과 여아들의 역량강화 및 남녀 평등의 실현

한국정부의 여성지위 위원회에서의 활동

- 한국 정부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1986~1993년까지 옵저버로 참가함. 1991년 한국의 유엔 가입 이후, 1993년 4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여성지위위원회 이사국으로 피선됨. 이후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사국을 역임함으로써 여성지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현재 2015-2022년 이사국으로 활동 중임
- 한국 정부는 매년 외교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과 연구원, 국회 등의 자문단을 한국대표단으로 구성하여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파견함.
- 한국 대표단은 고위급전체회의 연설과 고위급원탁회의를 통해 의제와 관련한 한국의 여성관련 정책을 소개함. 또한 여성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하며 세계 각국과 여성분야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협의지위와 WFWP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경제-사회-보건 분야의 국제현안 해결을 목표로하는 유엔총회 산하기구로 지난 1968년부터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차원의 의견을 수렴, 유엔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NGO에 대해 협의지위를 부여해 왔다.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결정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는데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 ▶특정분야 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자문만 구하는 전문기구 등 세가지이며, 이중 포괄적 협의 지위가 가장 상위다.

- **포괄적 협의지위**는 유엔이 NGO에 부여하는 최상위의 자격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및 산하 11개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총회에 상정될 수 있는 회의의제 등의 제안, 또 발언권 신청, 각종 자료 배포 등을 할 수 있다.
- **특정분야 협의지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는 제한적 발언, 산하기구에서는 무제한 발언할 수 있으나 의제를 제안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유엔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단순전문기구에 속한 NGO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때만 자문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이웃사랑회(현. 굿네이버스) 국제본부가 우리나라 민간기구로는 처음으로 유엔 민간기구(NGO) 위원회로부터 '포괄적 협의 지위'를 부여 부여받았다.
- 포괄적협의지위는 ECOSOC NGO 5,161등록된 기관 중 150개 한국에는 굿네이버스(1996년), **세계평화여성연합(1997년)**, 천주평화연합(2018년)
- 한국의 특별협의지위 기관: 밝은사회국제본부와 세계대학총장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자유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SW64와 WFWP

- **Consultation Day** : NGO CSW포럼의 시작을 의미, CSW64 참석자들의 사전교육 및 주제에 대한 내용 전달과 네트워킹의 시간
 - 일시: 3월 8일 09:00 ~ 15:30
 - 장소: Apollo Theater (253W 125th St, NY)
- **NGO CSW/NY Orientation**
 - 일시: 3월 9일 08:30 ~ 10:00
 - 장소: 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777 UN Plaza, New York, NY 10017, 2nd Floor)
- **NGO CSW/NY Reception**
 - 일시: 3월 10일 18:00 ~ 20:00
 - 장소: Grand Ballroom New Yorker Hotel

- WFWP Orientation

- 일시: 3월 8일 17:00 ~ 21:00
- 장소: Sutton Place New Yorker Hotel

- WFWP Parallel Event(병행포럼)

- 주제: 남녀평등-미래지향적이며 희망적인 관점
(Gender Equality: A forward looking, hopeful perspective)
- 일시: 3월 11일 10:30 ~ 12:30
- 장소: Social Hall(4 West 43rd Street, New York, NY)

- Young Professionals Evening

- 일시: 3월 9일 18:00 ~ 20:30
- 장소: New York Open Center(22 E. 30th Street, New York, NY)

- Horizon Summit

- 일시: 3월 14일 09:00 ~ 15:30
- 장소: Social Hall(4 West 43rd Street, New York, NY)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공공정책에 있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입법, 추진 및 모든 수준에 있어서 양성에 관련된 함의를 반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양성 모두에 있어서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법을 다방면에서 추구하고자 한다.

- 성 주류화의 개념은 198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처음 제창됐고 이후 국제연합 개발그룹(United Nations development community)에 반영됐다. 공식적으로는 4차 세계여성대회(베이징) 때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BPoA)의 기반이 됐다.

- 정부와 모든 주체는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결정과 실행 평가의 각 수준에서 양성 차별과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이해와 경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회학적 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모든 수준에서 양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양성 모두의 경험과 관심사 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 이행, 감시 및 평가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최종적인 목적은 양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다.

UN CSW와 WFP - 행사사진

1. 2019년 CSW63



2. 2018년 CSW62

